

투데이 칼럼

행복의 길

사람들은 성공, 행복을 위해 사는 것 같다. 그러나 오늘날 어수선한 시기에 나만이 아닌 공동체를 위해 생각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여기에 맞는 "우·행·시"란 말이 있다. 우·행·시란 '우리의 행복한 시간'을 줄여서 부르는 말이다. 몇해 전 나온 어느 유명 작가의 소설 제목이기도 하고 견배사 구호로도 자주 사용하는 말이다.

그 소설을 읽어 보지는 않았지만 간결한 세 글자가 주는 위압스가 좋고, '육십세때'라 그런지 어딘가 젊은이들이 쓸직한 말이라 좋다. 아니 그보다 더 좋은 건 이기주의, 개인주의가 팽배한 오늘날 나만의 행복을 말하는 나·행·시 가 아니고 우·행·시라서 더욱 좋다.

삼라만상을 망라하고 모든 인간사에는 시작과 끝이 있게 마련이다. 이제 새 봄과 함께 국가나 사회적 이나, 나 개인에게도 어렵고 지루한 날이 지나고 새 힘이 솟는 날들이

있었으면 한다. 이 좋은 계절에 우리의 행복한 시간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또 하나의 행복한 시간임에 틀림없다. '주여, 때가 되었습니다. 여름은 아주 위대했습니다. 당신의 그림자를 해시계위에 놓으시고 별관에 바람을 놓아주소서...' 젊은 학창시절 시인이 되어 들쭉리던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시 한 구절이 생각난다. '작금의 현실에서 위대하다는 뜻은 무엇인가. 한여름의 매미가 나무에 매달려 제 할 일을 다 하고자 죽자 살자 울어대다가 목숨을 다함이 위

대한 일ियो, 조그마한 트러에 수박을 가득 싣고 달고 시원한 수박이라고 고대고대 외치던 수박장수의 힘든 일상이 위대하고, 자그마한 식당을 운영하여 장학금을 내놓는 삶이 위대함이다. 거창한 구호가 난무하는 이 시대에 조그마한 목소리에 겸손하게 제 할 일을 묵묵히 수행하는 이들이 어디 그뿐인가. 그다지 힘 안 들이고도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음은 아직도 우리 사회가 밝고 긍정적인 곳이다. 묵묵히 제 할 일을 다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은 살만한 세상이란 말

이 아니겠는가! 유대인의 격언에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향수를 뿌리는 것과 같다'란 말이 있다. 다른 사람에게 향수를 부릴 때 자기에게도 몇 방울의 향수가 떨어진다는 의미다. 우리가 남에게 유익한 일을 도모하며 열심히 일할 때 몸은 피곤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뿌듯하며 표현하기 힘든 행복감이 물러온다. 그래서 헬렌켈러는 "산다는 것은 신나는 일이다. 그런데 남을 위해 산다는 것은 더욱 신나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저도 장애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이 말을 인생의 삶에서 큰 교훈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다.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때마다 이 소중한 말을 되새기면서 용기와 힘을 내고 살아가고 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해지는 길 아닐까 생각해본다.



김 양 옥 한국수피치리더십컨설팅 대표

독자제언

관공서 주취소란 '피해자는 본인 가족'

불이 가고 발잡 이루어 못하는 여름이 오고있다. 따라 음주 기회도 많이 지고 그만큼 관공서에 화풀이, 모욕적인 언행, 물리적인 폭행 등이 다른 계절에 비해 많아진다.

한 통계에 따르면 지구대·파출소의 신고출동 중 70%가 주취자와 관련된 신고라는 통계를 본 적이 있다. 이에 경찰은 이러한 행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주취자 처리로 인한 경찰력 낭비를 막기 위해 지난 2013년 개정된 경범죄처벌법에는 '술에 취한 채 관공서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하거나 시끄럽게 한 경우 6만원 이하의 벌금과 구류, 또는 과태료의 형에 처할 수 있다'는 처벌규정을 신설했다.

또 주거가 확인되더라도 그 행위가 지나칠 경우 현행법으로도 체포도 가능하게 되었다. 주취소란으로 인한 폭행 등으로 경찰관들의 정당한 업무에 중대한 피해를 준 경우에는 민사책임까지 묻는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적극 진행 중이다.

민약 술에 취해 주취자가 관공서 내에서의 소란과 업무 방해의 행위가 이루어지는 동안 타인에게 강도의 피해, 성폭력의 피해가 발생한다면, 또 그들이 경찰관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여 빨리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면 위와 같은 관공서 주취소란행위

로 인해 피해는 치안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노출된 우리 시민 누군가에게 가는 빚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도 있다.

단순히 생각하면 관공서 주취소란의 등장 배경이 단지 지구대 경찰관의 공권력 신장 및 업무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볼 수도 있겠다. 하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 본다면 경찰관 본연의 임무인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를 더 효율적으로 보호하고 최고의 치안서비스를 제공 받아야 할 국민에게 대한 경찰관들의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처벌에 앞서 술에 관대한 문화 등 사회적 분위기가 일신과 개인 스스로 주취소란 난동 등의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절제된 음주 문화를 활성화 하고 주취상태에서 타인에 피해를 주는 행위 자체를 근절해야 한다는 의식이 고취되어야 한다. 그에 발맞추어 최근 사회적 분위기 또한 술로 인한 범죄에 단호한 시선을 보내는 추세이다. 정부에서도 추진 중인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하여 경찰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모든 국민들이 앞장서야 할 것이다.

배준량 순경경찰서 경무과 순경

독자제언

실종아동 예방책 '코드아담' 활성화

어린이날은 물론 영화제 및 지역축제 등 다양한 행사들이 개최되고 있는 5월이다. 많은 볼거리들로 즐거움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지만 수많은 인파 속에서 혹은 나 발생할 수 있는 실종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

지난 어린이날 연휴기간에 발생한 18세 미만 실종아동 신고만 해도 182건으로 아이들의 경우 활동성이 커 소위 말해 눈 깜짝하는 사이 보호자를 이탈할 수 있기에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는 부모 등 보호자들이 더욱더 신경을 써야한다.

대체로 2014년 7월에 국내에도 도입된 '코드아담' 제도는 백화점과 공영장, 공공장소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실종신고가 접수 될 경우 시설의 입구를 차단해 조속히 아동을 찾아 미아를 방지하는 시스템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이면 실종아동 발생 시 의무적으로 초기 총력대응을 하도록 하였다.

해당 다중이용시설·장소 내에서 아

동 등이 실종될 경우 실종예방장치에 따라 관리자는 즉각 안내방송을 하고 경보발령과 출입문 봉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수색 10분이 지났을 때 도 아이를 찾지 못할 경우 경찰에 신고해야하며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지난달 25일 실종아동범이 개정되면서 지자체는 시설의 신규영업, 폐업휴가 등 변경사유가 생기면 해당 시설의 정보를 경찰관서에 의무적으로 알리게 되어 보다 정확한 시설 현황 관리가 가능해졌다.

실종아동 수색 골든타임은 아이가 실종된 직후 2~3시간이다. 실종 신고 후 시간이 지날수록 못 찾을 확률이 급증해 실종이 장기화 될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 그렇기 때문에 미아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코드아담 활성화는 무엇보다 필요하다.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으로 이 의미 있는 제도가 활성화되어 실종예방 대책으로 빛을 발할 수 있길 바란다.

김소정 고령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순경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설

군산 추경 지원 시급

전북도는 군산 추경 지원을 강하게 말해야겠다. 지방에도 지적했거나 정부와 산업은행의 행태가 못 마땅하다. 그동안 정부와 산업은행은 8천억 원에 달하는 할 세를 한국 GM에 지원하기로 하는 협상을 했다. 그런데 그게 좀 납득하기가 어렵다. 8천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거액을 지원한다면 군산에 대한 배려 이야기가 없었다. 공장에 대한 활용 방안 언급조차도 없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전북도는 군산 지원 추경안을 강하게 말해야 한다. 만시지탄이 지만 이제 국회가 정상화되었으니 내야 한다는 이야기다. 전북도는 군산쪽으로 시선을 단 한 번이라도 돌려보라고 강력하게 말해야 한다. 전북도가 그것을 말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도전이 되는 것도 아니다.

역대 정부는 전북의 발전을 응원하기는 고사하고 관심사 밖으로 밀어냈던 게 사실이다. 고의적

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고도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돼버렸다. 역대 정부들은 전북도의 요구에 귀를 닫아왔던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다른 광역 시도와 비교해 낙후의 모습이 현저하다. 이런 모습은 국토의 균형 발전론과 맞지 않다. 역대 정부의 일처리 방식을 보면 지역 차별 의도가 역력했는데 현 정부도 오묘보백백이다. 전북도는 그동안 제 몫을 찾기를 말해왔고 전북의 자존심을 말해왔다. 그러므로 차별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전북도는 정말이지 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전북도는 도민의 정서가 어떠한지 헤아려야겠다.

전북도는 비상한 행보를 보여야 한다. 군산 문제가 심각해져 전북도의 행보가 이렇게 정중동이어서는 곤란하다. 오늘날 우리 지역의 모습은 균형발전의 증거가 아니다. 군산이 차별 대우 때문에 울고 있음에 대해 전북도는 통탄해야 한다. 그리고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야 한다. 노력하고 있다고 해도 변화가 없다면 그게 무슨 소용인가. 전북도는 군산 추경 지원이 시급함을 강하게 말해야한다.

영농기반 구축사업에 기대 크다

전북도가 안정적 영농 기반 구축 사업에 나서고 있다는 소식이 다. 그래서 도내 농업생산기반 시설이 보다 정비되고 나아지리라 기대이다. 전북도가 총 240억 원을 투입하기로 한 것은 농도 전북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다. 사실 이 전북도의 농업 발전은 중요한 프로젝트였고 그것은 자금도 그러하다. 이제 시일이 많이 지났지만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전북 대선 공약 1호이기도 하다.

전북도는 이번 사업이 농업 용수 공급 시설과 배수 시설을 새로 신설하거나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도가 이처럼 영농 환경 개선과 재해 예방에 미리 나서고 있음은 마음 든든한 일이다. 전북도가 농업 분야에 꾸준히 예산을 투입해 농도 전북의 자존심을 지켜 나가는 것은 농가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고마운 일이다. 전북도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농가의 소득 증대를 말해왔고 도정의 주요 업무라고도 말해왔다. 그러므로 이번 사업은 전북도가 약속을 실행에 옮기는 것으로 평가할만 하다.

그래서 지금 다시 생각하는 것이 있다. 농생명 벨리 조성 사업으로 전북 농업의 성격을 바꾸겠

다고 한 것이 그것이다. 전북 농업의 성격을 바꾸는 것은 전북 농업의 미래 희망이 아닐 수 없다. 전북도는 또 언젠가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벨리 조성 사업'을 주창한 적도 있다. 그러한 발표들은 전북도가 도정 주요 업무로 농생명 산업에 주력하겠다고 말한 것 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고 사료된다. 그리고 그것은 농생명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라고도 공약이 있다. 그러므로 이제 그 이름값들을 착실히 성취해야 한다. 앞으로 전북도의 능력 발휘가 어디까지 미칠지 관심이 크다.

전북도는 이제 더욱 힘을 내서 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해야 한다. 농촌의 실상을 보면 소득 증대를 말하는 이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 전북도가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니지만 기대에 조금 못 미치고 있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농민들이 민중을 말하지 않는다면 더욱 노력할 부분이 있음을 시사한다. 아무튼 이번 영농기반 구축 사업은 삼락농경하고도 어울리고 농생명산업하고도 어울리는 프로젝트이다. 전북도는 그동안 농가를 위하여 많은 구상을 발표했으므로 이젠 평가받을 때 되었다.



##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 전주매일